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공기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들어가며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올해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에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가 2024년에는 누적 3만 3,327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백일해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증가할 경우, 병원·보육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될 위험도 커진다. 이와 관련,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보육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작업 등에 대해 공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관리기준

공기매개 감염병이란 결핵·수두·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하여 전염되는 감염병을 말한다.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원인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고 감염병 발생 노동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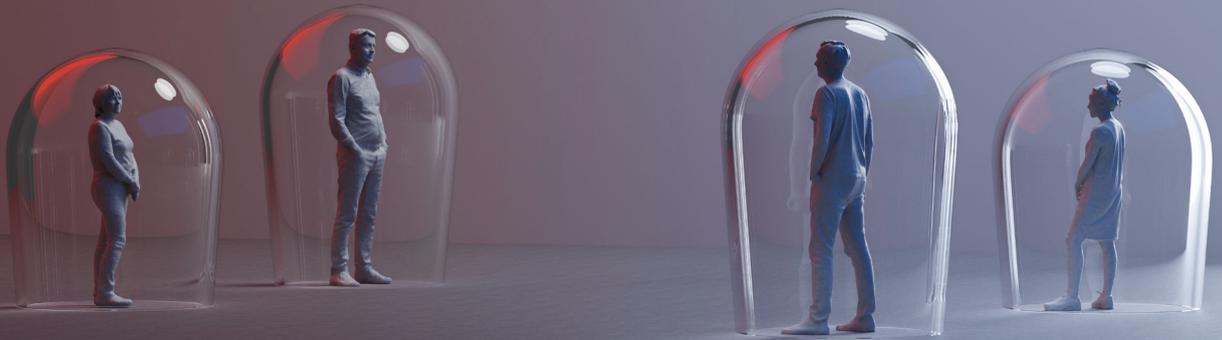
사업주는 노동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감염병의 종류와 원인 ▲전파 및 감염

경로 ▲감염병의 증상과 잠복기 ▲감염되기 쉬운 작업의 종류와 예방방법 ▲노출 시 보고 등 노출과 감염 후 조치를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노동자가 환자의 가검물을 처리(검사·운반·청소 및 폐기)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보호앞치마, 보호장갑 및 보호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사업주는 노동자가 공기매개 감염병이 있는 환자



와 접촉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면적이 저하되는 등 감염의 위험이 큰 노동자는 전염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셋째, 가래를 배출할 수 있는 결핵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는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는 격리실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신한 노동자는 풍진·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결핵균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한 경우, 노동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만약 노동자가 공기매개 감염병 환자에 노출되었다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노동자에게 공기매개 감염병의 증상이 발생한 즉시 감염 확인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감염이 확인되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풍진·수두 등에 감염된 노동자가 임신부인 경우는 태아에 대하여 기형 여부를 검사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동료 노동자 등이 감염된 노동자로부터 전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까지 접촉을 제한해야 한다. 🐦